

ISSN 3058-3624
<https://kmdp.or.kr>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ALZ암등

Winter
2024. Vol.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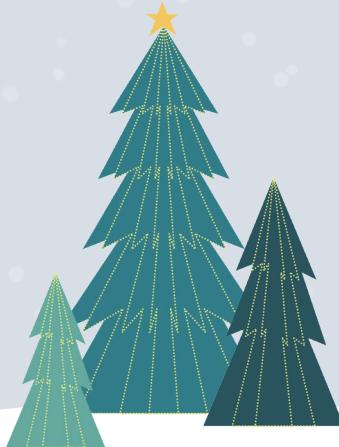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환자와 기증자의 생명나눔 이야기

Korea Marrow Donor Program



목 차

회장 인사말	3p
항상 고맙습니다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4p 수혜자 안호균
사랑을 나눕니다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	6p 기증자 이현서
현장 STORY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온기' 2기 활동을 되돌아보며	8p 단장 최재혁, 부단장 박서진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삶을 향한 기회	10p 이식조정2팀 이경희
KMDP 창립 30주년 기념 2024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12p
KMDP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14p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16p
좋은 소식 전합니다	
KMDP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17p
KMDP NEWS	18p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20p
KMDP 역대 기증자 명단	22p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26p
함께 나누는 분들	30p
KMDP 안내사항	31p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AL3장들

WINTER 2024. Vol.89

발 행 일 2024년 12월 1일 발행
발 행 인 이홍기
편집책임 김건중
편 집 박리나, 지수희
디 자 인 디앤디피아 (<https://dndpia.com>)
발 행 처 KMDP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65, 백상스타타워 1차 1503호
T E L 02-737-5533
F A X 02-737-5336
E-mail KMDP@kmdp.or.kr
홈페이지 <https://kmdp.or.kr>

2024년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를 위해 KMDP가 설립되어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을 시작한지 어느덧 30년을 맞이한 기념비적인 해입니다. 또한 올해 1월에는 조혈모세포 기증 7,000례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에 맞춰 KMDP는 9월 7일 토요일, CHSCB(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와 공동으로 『KMDP&CHSCB 창립 30주년 기념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개최하였습니다. 이 날 행사를 통해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발전을 위하여 오랜 시간 도움 주신 의료진과 기증자님께 고마움을 전하였습니다. 또한 이식 후 무사히 건강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소녀의 진심 어린 감사는 모두에게 진한 감동 그리고 보람이 되었습니다.

9월 27일 금요일, ICBMT 2024(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KMDP&CHSCB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무리하였습니다. 심포지엄을 통해 우리나라와 미국, 유럽, 일본의 조혈모세포 이식 전문가가 모여 각국의 최신 동향을 교류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발전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이어 KMDP는 『1994-2024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30년』을 발간하였습니다. 지난 30년동안 KMDP가 펼쳐온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사업, 기증희망자 모집·등록사업과 기증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및 후원사업, 그리고 조혈모세포 기증·이식의 국제교류사업 등을 담았습니다.

위와 같은 KMDP의 활동은 임직원의 노력 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증자와 기증희망자, 의료진,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후원자의 관심과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과 아낌없는 후원을 밀거름으로 KMDP는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범국민적으로 확산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일과 가정에 늘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장

이 흥 기



수혜자 안호균

죽음을 눈 앞에 두고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힘들었던 시간을 이겨내고 시종일관 밝은 미소로 답변해주신 안호균 님과
든든하게 옆에서 동생의 곁을 지켜주고 계신 안지숙 님의 따뜻한 가득한 사연을 소개합니다.

· 수혜자 안호균 님 ·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혈액암을 두 번 겪은 1991년생 안호균이라고 합니다.



언제 혈액암이 발병되었는지, 치료 상황은 어떠하신가요?

2017년에 처음으로 급성골수성백혈병 진단 받은 후 항암과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난 2023년에 재발하여 다시 항암과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DLI(기증자 림프구 주입술)*을 시행하였고, 지금은 기증자님의 조혈모세포가 생착이 잘 되어 회복 중에 있습니다.

*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가 고강도의 항암 치료 전에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채취해둔 후, 종양세포를 최대한 제거한 다음 자신의 조혈모세포를 이식(주입)하는 방법

*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와 유전자형(HLA, 조직적합성항원형)이 일치하는 타인(기증자)의 건강한 조혈모세포를 채취하여 환자에게 이식하는 방법

* 기증자 림프구 주입술(DLI, Donor Lymphocyte Infusion)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 후의 추가적인 치료 방법으로 동일 기증자로부터 림프구를 다시 이식받는 방법

동종 조혈모세포 이식과 DLI까지 생면부지의 기증자로부터 2번이나 이식을 받으셨습니다. 이 과정에서 힘들었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6년 전, 자가 조혈모세포 이식을 준비하면서 그 전에 시행하는 이식 전 처치 항암 때 약이 너무 세서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식(동종 조혈모세포 이식)은 아예 포기하려 했지만 교수님과 전공의 선생님의 충분한 설명과 가족들의

지지덕분에 마음을 다잡고 치료에 임할 수 있었습니다. 2번째 이식 후에는 조혈모세포가 생착이 잘 되지 않아 추가로 DLI를 받아야 했는데 혹시라도 기증자님께서 시간이 안 된다거나 거절하시면 어쩌나 하는 마음에 많이 불안했었습니다. 정말 다행히 기증자분께서 감사하게도 한번 더 이식을 해주신다고 하셔서 마음이 놓였지만, DLI 후 부작용으로 매우 힘들어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도 접하면서 걱정이 많이 된 것도 사실입니다. 많은 걱정과 고민 속이 있었지만 감사한 기증자분 덕분에 DLI를 받았고, 여드름 같은 피부 속주 반응 외에 큰 부작용 없이 무사히 잘 생착되어 지금은 건강을 회복하고 있습니다.

안호균 님께서는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 지원사업으로 KMDP에서 치료비와 희망박스를 지원받으셨는데요, 투병과정에서 이와 같은 지원이 얼마나 도움이 되었나요?

많은 환자분들께서 공감하시겠지만 치료비가 정말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적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치료에 집중해야 하니 경제 활동을 못하게 되어 비용 부담이 커었습니다. 5년 뒤에 재발됐을 때는 보험 적용 비율이 높지 않아 더 힘들었는데, KMDP에서 2차이식 치료비로 200만원을 지원 받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희망박스로 받았던 여러 물품 중에 살균소독제가 있었는데 분무기 형태로 되어 있어 가는 곳마다 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항암과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피부도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는데 성분이 좋은 화장품을 받아서 피부 관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피부 뿐 아니라 입안도 많이 헐어 있었는데, 가글도 있어서 너무나 잘 사용했습니다.

치료비와 희망박스는 대한적십자사 헌혈기부권*사업을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되었습니다. 헌혈자분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얼굴도 모르는 환자들을 위해 자신의 시간을 내어 기꺼이 헌혈해주시고, 게다가 헌혈기부권을 선택해셔서 더욱 더 환자들을 생각해주심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이를 통해 치료비와 물품 지원을 해주시는 KMDP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 헌혈기부권

헌혈 후, 기념품 대신 ‘헌혈기부권’을 선택하면 기념품이 아닌 일정 금액이 기부되는 제도

조혈모세포를 나누어 준 기증자님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기증자님을 만나게 된 기적 덕분에 죽음을 눈 앞에 두었던 제가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조혈모세포를 기증해주시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기증자님을 위해 축복 기도를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같은 아픔을 겪었던 환자분들께도 응원과 격려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재발과 고위험군으로 살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낮은 상태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기적적으로 치료되어 건강을 되찾아 가고 있습니다.

치료를 받다 보면 마음이 많이 우울하고 다치는데, 몸의 치료 뿐 아니라 마음 관리도 잘 하셔서 정신과 마음까지도 건강해지기를 응원합니다. 부디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마시고, 마음을 다잡고, 식사 잘 하시고, 잘 치료받으셔서 일상을 되찾기를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 보호자 안지숙 님 ·

가족의 병환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기분이셨나요?

2017년, 호균이가 혈액암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처음에는 전혀 믿기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동생은 4대강종주와 국토 대장정, 마라톤을 할 정도로 건강했기 때문에 드라마나 영화에서나 보던 큰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조차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2023년, 재발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땐 아닐거라 믿었지만 제가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고 생각 했고 동생이 잘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곁에서 도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은 치료 과정 속에서 호균 님께 특히 도움이 되고자 하는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병 때문에 음식을 섭취하는 것조차 힘들어졌지만 그래도 잘 먹어야 버틸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에 안전성이 보장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서 그중에 한 두 가지라도 동생이 먹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생이 마음을 잘 잡고 긍정적으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저부터 밝은 모습을 보여주려 노력했습니다.

하루하루 건강을 되찾아가는 호균 님께 전하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호균아! 치료 과정에서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수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힘든 치료를 잘 이겨낸 만큼 앞으로 더욱 건강 관리에 신경을 쓰자! 그리고 지금 피부에 염증이 있는데 잘 관리해서 좋은 피부가 되면 좋겠고, 마음도 잘 관리해서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청년이 되기를 기도할게, 널 응원해!

기증자 이현서



한국 조혈모세포 은행 협회
Korea Marrow Donor Program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기증자 이현서 님은 작년,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온기’의 활동으로 진행된 아주대학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에서 기증 서약을 한 후 1년이 채 되지 않아 기증까지 하셨습니다. ‘온기’의 첫 기증자, 이현서 님의 인터뷰를 소개합니다.

간단히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2학년 이현서라고 합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신청은 언제, 어떤 계기로 하시게 되었나요?

작년 12월, 학교에서 진행된 조혈모세포 캠페인 때 신청했습니다. 장래에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싶어 의과대학에 진학했는데 언젠가 조혈모세포 기증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라는 마음에 기증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평소에 봉사활동 같은 것은 자주 하시는 편인가요?

지금은 예전처럼 자주 하지는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연탄 나르기 봉사활동, 도서관에서 책을 정돈하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기증하시기 전 혹은 기증희망등록하시기 전에 조혈모세포 기증에 대해서는 알고 계셨나요?

기증의 중요성과 필요한 이유, 골수채취 방법 그리고 혈액암 환자가 조혈모세포 기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촉진제(조혈모세포 성장인자, G-CSF) 주사제를 투여한 후에 성분헌혈 하듯이 기증한다는 것까지는 이번에 실제로 기증을 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기증희망 신청하시고 연락이 온건 얼마만인가요? 연락 받으셨을 때 첫 느낌은 어떠하셨나요?

등록하고 나서 운 좋게도 약 8개월만에 일치 연락을 받았는데 막상 연락을 받고 나니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인터넷에 검색해보니 일치 연락을 받을 확률이 되게 낮다는 걸 다시 알았는데 이렇게 기증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운이 되게 좋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재 의과대학에 재학 중이신데요, 조혈모세포 기증이 앞으로의 진로를 결정하는 데에 있어 영향을 끼친 것 같다면 무엇인가요?

아직 2학년이다보니 막연하지만 운동을 좋아해서 정형외과나 재활의학과를 염두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증을 했다보니 혈액 관련 과에도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증을 결심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무엇인가요?

의대생으로서 공부를 막 시작한 참인데 이렇게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는 건 정말 복 받은 일이라 생각해서 기증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의 공부에 있어서도 큰 고양감을 받게 되었구요. 그리고 어머님께서 독실한 천주교 신자신데 그 영향으로 저도 천주교 신자로서 사람을 살린다는게 나중에 저를 위해서도 좋은 기억이 될 것 같아 기증을 결심했습니다.

기증 소식에 주변분들의 반응들은 어떠하셨나요?

걱정은 많이 해주셨는데 다행히 반대는 없었습니다. 제가 위낙에 건강하기도 하니 좋은 일 열심히 잘하라는 응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학교 동기들로부터는 신기하다라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촉진제 투여에 대해서 저처럼 잘 모르는 친구



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위험하지 않겠냐는 걱정들도 있었지만 촉진제 투여로 헌혈하듯 기증한다는 걸 알고 난 이후엔 많이 응원해줬습니다.

기증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과 좋았던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제가 겪었던 어려운 점은 아니지만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촉진제 주사제를 맞아야 하다보니 주사가 무섭거나 첨단 공포증이 있는 분이라면 두렵고 어려울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혈모세포 채집하면서는 4시간동안 양팔을 쓰지 못하고 계속 누워 있다보니 지루함에 힘들었지만 음악을 들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짐짓을 계속 하느라 손이 조금 피로했던 점도 있었구요. 그렇지만 이식 받으실 환자분을 생각하면서 열심히 짐짓을 했고, 필요로 한 만큼 조혈모세포가 충분히 모였다고 해서 안심했습니다. 병원 식사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기증 이후에 조혈모세포기증에 대한 본인의 생각이 달라진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촉진제로 안전하게, 그리고 헌혈 방식으로 편하게 조혈모세포를 모아서 기증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것이 가장 큰 달라진 점인 것 같습니다. 이 사실을 많은 분들이 알게 된다면 조금이라도 기증에 대해 거부감을 덜 느끼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떤 분들은 촉진제 맞고 나서 많이 아팠다고도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불편하지 않았고 일상생활도 평범하게 보내면서 기증을 잘 준비하고 마칠 수 있었습니다.

기증 받으시는 수혜자 분께 응원의 한마디 해주세요.

수혜자분께 건강하고 튼튼한 조혈모세포를 드리기 위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체격이 크신 걸로 아는데 이식이 잘 되길 바라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해주시고, 많이 베푸시면서 이제 다시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전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의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으신 수혜자 뿐 아니라 모든 이식 환자분들이 완쾌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장 STORY



단장 최재혁(아주대의대 본과 4학년), 부단장 박서진(울산대의대 본과 2학년)

안녕하세요.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온기’의 단장 최재혁(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4학년), 부단장 박서진(울산대학교 의과대학 본과 2학년)입니다. 저희 홍보위원단은 2023년 9월에 창단하였고, 올해 2기 기수로 27개 의과대학에서 모인 29명의 홍보위원들과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KMDP 의대생 홍보위원단 ‘온기’ 이모저모

최재혁 단장 저희 홍보위원단의 핵심 활동은 소속된 학교에서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자 모집 캠페인을 홍보하고, KMDP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아서 직접 운영하는 것입니다. 저도 2기 단장으로 활동하기 이전에 1기 홍보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저희 의과대학 축제에서 한 차례, 아주대학교 본교에서 한 차례 캠페인을 진행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 생명을 구하는 가치있는 일이라는 인식보다는 막연하게 무섭거나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인식이 아직까지는 더 크게 형성되어 있어 홍보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을 최대한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기증희망등록 자체에 무관심한 학생들도 있다 보니 SNS, 포스터, 학교 홈페이지 공지와 수업이 끝난 강의실에 직접 들어가 홍보활동을 하는 등 다양한 루트로 캠페인을 준비하는 동기들과 함께 홍보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감사하게도 이렇게 홍보한 내용들을 보고 많은 학우들이 기증희망등록에 참여하였고, 캠페인을 진행한지 만 1년이 채 되지 않았는데 제가 직접 기획하고 운영했던 캠페인에서 첫 기증자가 탄생하게 되는 기쁜 소식을 전달받게 되었습니다. 임상 실습 중에 캠페인을 준비하다보니 어려움도 있었지만 준비에 들인 노력만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더욱이

의미가 깊은 활동인 만큼 굉장히 뿌듯한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박서진 부단장 저희 홍보위원단은 각 소속학교에서의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뿐만 아니라 조혈모세포 기증과 관련된 인식 개선, 기증희망등록 독려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자유롭게 기획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는 1기 활동 시절, 젊은 세대 의사들과 의대생들의 교류의 장인 ‘젊은의사포럼’에서 직접 부스를 기획하고 진행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관련 분야를 전공하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만큼 현장에서의 반응도 뜨거웠지만, 이후 사석에서 다른 의대생들을 만났을 때 포럼에서의 부스 참여 경험을 제게 공유해주는 사람들이 있어 더욱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많은 의대생들이 환자가 겪는 고통이나 건강한 삶의 소중함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교과서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어렵지 않게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환자에게 다가가는 첫 발걸음을 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알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 발걸음에 저희가 더욱 보탬이 되겠습니다.

히크만주머니 제작 캠페인의 시작

박서진 부단장 안타깝게도 올해 의료계 상황으로 학교 근처에서 머무르는 학생들이 적다 보니 홍보위원들이 캠페인을 직접 운영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아쉬움으로 대안을 고민하던 중 1기 활동에서 했던 히크만주머니 제작 봉사를 떠올렸습니다. 히크만 주머니는 히크만 카테터를 삽입하고 생활하는 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하게 생활하게 해주는 소중한 필수품이지만, 따로 제작하는 공장이 없어 환자들이 직접 만들거나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에 저희가 ‘온기’ 홍보위원들은 각 학교에서 히크만 주머니 제작 캠페인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침 휴학 기간에 봉사활동을 하며 의미 있게 보내고자 하는 의대생들의 수요와도 맞물려 총 19개 학교에서 1,445개의 히크만 주머니를 제작하여 KMDP로 기부하였습니다.

이번 활동으로 히크만주머니를 구하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희망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봉사활동이 ‘온기’에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이 기회를 빌어, 각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캠페인을 진행해주신 홍보위원들과 저희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신 KMDP 선생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온기’ 활동 이후 첫 기증자 탄생

최재혁 단장 이렇게까지 빨리 기증자(이현서 기증자, 아주대의대 예과 2학년)가 탄생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제가 직접 운영했던 캠페인에서 기증희망등록을 한 분이었기에 감회가 더 새롭고 뿌듯했습니다. 등록을 하더라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확률이 낮은 만큼 기증희망자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밭을 일구는 농부의 마음가짐으로 캠페인을 진행했고, 하나의 소중한 결실이 맺히는 것까지 활동 중에 지켜볼 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행운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본지 p.6 참고)

흔쾌히 기증에 응해주신 이현서 학우분께도 감사하고, 저 또한 기증희망자 중 한 명으로서 저에게도 같은 기회가 주어지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활동에 있어서도 좋은 원동력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온기’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

저희 2기 ‘온기’ 홍보위원단의 활동은 11월 30일까지로 활동이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이제 새롭게 3기를 모집하여 새단장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온기’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다음의 사항들을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먼저, 홍보위원단 자체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현재 27개의 의과대학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보위원을 40개 의과대학에서 모두 위촉, 활동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 합니다. 학교별 상황은 다르지만 홍보위원을 늘림으로써 더 활발히 캠페인을 진행하고, 보다 나은 활동을 위해 같이 고민하고 방안을 찾아가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온기’ 활동 분야를 다각화하여 여러 학교에서 다양한 종류의 캠페인을 기획·진행하는 것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올해 진행한 히크만주머니 제작 캠페인도 이를 위한 첫 번째 발걸음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온기’ SNS 채널을 더욱 활성화하여 캠페인을 통해 얻은 변화들을 함께 공유하고, 조혈모세포 기증이 많은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뜻 깊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KMDP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온기’는 더 발전된 모습으로 환우들에게 도움이 되는, 생명을 살리는 데에 공헌할 수 있는 단체가 되고자 더욱 노력을 다하려 하니 많은 관심과 기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시작, 또 다른 삶을 향한 기회

안녕하세요, KMDP 이식조정2팀 코디네이터 간호사 이경희입니다. KMDP와 함께한 지도 어느덧 3년 차가 되어 갑니다. 올 한 해에도 많은 환자와 기증자님 사이에서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을 조율하며 뜻깊은 날들을 보냈습니다.

특히 올해는 KMDP가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특별한 해로 3월엔 “KMDP 창립 30주년 기념식”에서는 KMDP의 지난 여정을 돌아보며 서로의 헌신과 희망을 되새기고, 앞으로의 우리의 비전을 다짐하였습니다. 또한 9월에 개최된 “KMDP 창립 30주년 기념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행사를 통해 기증을 애태케 기다리며 희망을 품고 투병해 온 이식수혜자와 생명을 나누어주신 기증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 두 행사의 사회자라는 영광스러운 기회를 얻어 개인적으로 더욱 의미 있는 날이 되었습니다.

기증자께 드리는 감사의 마음

기증자님, 여러분의 결단은 단순한 선택을 넘어서 선 생명의 나눔이며, 새로운 희망을 전달하는 숭고한 행위입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헌혈보다 훨씬 더 깊은 고민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많은 기증자님이 가족과 직장 동료들의 응원과 이해로 여러 단계를 거쳐 기증에 동참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헌신과 배려 덕분에 많은 환자분이 새로운 삶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따뜻한 마음에 늘 깊이 감사드리며, 각자의 자리에서 묵묵히 이 소중한 일을 해내고 계신 기증자님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기증 절차와 KMPP 코디네이터의 역할

저는 KMDP 이식조정 코디네이터로서 환자와 기증자



사이에서 중간다리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 과정은 환자와 기증자가 모두 긴장과 기대를 갖고 맞이하는 복잡한 절차입니다. 이에 KMDP 코디네이터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필요한 검사와 절차들을 기증자님께 상세히 안내하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구체적으로는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유전자(HLA) 정밀 검사부터 건강 검진, 조혈모세포 촉진제 주사 투여, 입원 일정 조율 등 기증자의 불편함을 최소화하며 원활하게 기증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기증자님께서 이러한 복잡한 절차들을 거쳐 무사히 기증을 마치는 모습을 보면 생명을 이어가는 데에 저도 함께 할 수 있었다는 보람을 느끼며, 기증자님의 결심과 기증 실천에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하지만 기증 과정이 늘 순조롭지만은 않습니다. 기증 직전에 환자의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기증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면 오랜 기다림과 준비 끝에 다가온 기회가 사라진 기증자님과 환자분 모두에게 죄송스러운 마음에 저 역시 한동안 마음을 추스르기가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증자님의 결심과 헌신이 분명 환자와 그 가족분들께 따뜻한 위로와 힘이 되었으리라 생각하며, 변치 않고 제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다시금 결심을 다집니다.

기증자께 전하고 싶은 마음

기억에 남는 환자분의 사연이 있습니다. 환자 뿐 아니라 가족들 모두가 감사 편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 분께서는 결혼을 앞두고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암과 싸우며 치료에 임하시는 동안 가족들 또한 절망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셨을 것입니다. 그 와중에 보내주신 편지에는, 기증자님께서 환자 한 명의 생명을 구하셨을 뿐만 아니라 가족에게 소중한 일상을 되찾아주고 희망을 전해주셨다는 감사와 감동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조혈모세포 기증이 한 생명을 살리는 것일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그들의 소중한 일상까지 지키는 위대한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기증자 여러분, 당신께서 내리신 결단은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되고, 또 다른 삶을 향한 기회가 됩니다. 기증자 한 분 한 분의 결심과 헌신이 환자와 그 가족에게 얼마나 큰 변화와 희망을 가져다주는지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나아갈 방향과 사명감

저는 업무 외에도 개인 SNS 채널을 통해 소아암 환자분들의 일상을 보며 더욱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이식이 필요한 환자분께 희망이 닿을 수 있도록 조율하고 지원하며, 기증자님께서 마음 편히 기증에 참여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돋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이라는 결단을 내려 주신 모든 기증자님께 진심으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덕분에 오늘도 누군가는 새로운 내일을 꿈꾸며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저는 도움이 필요한 분들께 희망을 전하는 다리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KMDP 창립 30주년 기념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1994년, 우리나라의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인 "한국골수은행협회"와 "가톨릭골수정보은행(현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CHSCB)"이 설립되었습니다. 한국골수은행협회는 1996년 7월 첫 이식을 시작으로 2000년 3월 100례, 2003년 9월 500례, 2006년 1월 1,000례, 2012년 2월 3,000례, 2018년 8월 5,000례, KMDP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2024년 1월에는 7,000례의 조혈모세포(골수) 기증을 달성하였습니다. KMDP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의 기증자를 모두 합하면 1만여 명이 넘습니다.

그동안 협회 명칭의 변화도 있었습니다. "한국골수은행협회(Korean Marrow Donor Program)"에서 2004년 1월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Korea Marrow Donor Program)"로 바꾸었는데요. 이를 통해 말초혈조혈모세포 채취 방식으로의 변화를 반영하고 '골수'에서 떠오르는 거부감을 덜어 우리 국민의 조혈모세포 기증 참여를 높이고자 하였습니다. 2023년 3월에는 업무 정체성을 보다 명확히 하고 기관을 브랜드화하여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증희망자 모집 및 이식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자 협회의 영문 기관명인 KMDP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KMDP는 한 분이라도 더 많은 혈액암 환자에게 조혈모세포 이식으로 새 생명의 희망을 나누기 위해 30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이는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도 마찬가지로 두 기관은 서로 협력하여 안전한 기증, 신속한 이식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왔습니다. 그리고 2024년, 두 기관은 그동안 각자 개최해왔던 "기증자 감사 행사"를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공동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9월 7일 토요일 오후 1시, 기념비적인 "KMDP&CHSCB 창립 30주년 기념 2024 조혈모세포 기증자 감사의 날"이 흰물결아트센터(서울 서초구)에서 막을 올렸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자와 이식수혜자, 정부 부처 및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관계자 그리고 후원회원 등 350여 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 날 행사는 KMDP 이경희 코디네이터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김다솜 코디네이터의 사회로 1부, 2부로 나뉘어 진행되었습니다. 1부에서는 KMDP 이홍기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장기이식관리과 이현숙 사무관의 축사,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정연준 은행장의 환영사가 이어졌으며, 이후 약 10분간 두 기관의 30년간의 발자취를 담은 기념 영상을 함께 시청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증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기증할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이식의료기관 및 채취의료기관 코디네이터 감사패 수여식을 진행했습니다. 대상자는 아주대학교병원 함주희 코디네이터, 은평성모병원 김혜진 코디네이터로 기증 활성화에 큰 공헌을 한 두 분께 고마운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했습니다.

이어서 이식수혜자 대표로 박윤서 양이 아버님과 함께 무대에 올랐습니다. 윤서 양은 2017년에 생면부지의 기증자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은 후, 현재는 건강을 되찾아 학업에 집중하고 있는데요, 행사에 자리한 기증자님 모두에게 전하는 감사 편지를 담담하게 읽어 내려가는 모습에 장내는 따뜻한 미소와 감동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식수혜자의 감사편지 낭독 후, 조혈모세포 기증과 기증활성화를 위해 힘든 기증자 대표 2분께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여식이 진행됐습니다. KMDP를 통해 2002년 골수를 기증한 박철희 기증자님과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을 통해 2024년 조혈모세포를 기증한 남정숙 님이 그 주인공으로, 축하의 꽃다발은 윤서 양이 전해 감동을 더했습니다. 특히 박철희 기증자님은 기증 이후로도 KMDP가 정기적으로 진행하는 마로니에 공원 캠페인에 22년 동안 참여하여 실제 기증자로서 자신의 경험담을 전하며 기증희망등록을 독려하였습니다.

또한 2016년에는 본인이 근무 중인 서울교통공사와 KMDP의 업무협약 체결을 추진하여 기증활성화를 위해 힘써주셨습니다.

잠시간의 휴식 및 정돈 시간을 가진 후 2부 "박경림 토크쇼"가 이어졌습니다. 방송인 박경림 씨가 무대에 등장하자 마자 객석에서 환호성과 함께 힘찬 박수를 보내주셨습니다. MC 박경림 씨는 사전에 모집한 사연과 현장에서 즉석으로 여러 기증자님을 무대로 초대하여 모두와 함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각자 다른 사연과 이유로 조혈모세포 기증에 동참했지만, 환자의 건강과 완치만을 바라는 마음은 다들 같았습니다.

기증자님들의 이야기와 함께 KMDP 이홍기 회장과 원종호 부회장도 무대에 올라 재치 있는 입담을 뽐냈으며, 1부에서 감사패를 받은 아주대학교병원 함주희 코디네이터님도 마이크를 건내 받아 의료진으로서 기증자에 대한 감사와 이식환자에게 위로를 전하며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박경림 토크쇼"를 끝으로 막을 내린 이 날 행사는 약 3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많은 분들께서 기증자와 수혜자가 함께 한 뜻깊은 자리였고, 기증에 대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을 만나 행복하고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참여 소감을 보내주셨습니다.

생명나눔을 몸소 실천하신 수많은 기증자님들께 이 자리를 통해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KMDP는 전국 의료기관, 정부부처와 협력하여 우리 국민이 안심하고 기증에 임하고, 환자에게는 신속히 이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KMDP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

ICBMT 2024, The 30th Anniversary Symposium of KMDP & CHSCB

2024년 9월 26일(목)부터 28일(토)까지 사흘간 ICBMT 2024(제8차 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가 부산 백스코에서 펼쳐졌습니다.

ICBMT 2024는 조혈모세포 이식과 함께 최근 치료 경향의 변화에 발맞춰 세포 치료 분야 전반에서 뛰어난 국내외의 연구 성과들을 소개하고, 활발한 국제적 협력 학술활동이 이루어지는 영향력 있는 국제학술대회입니다.



학술대회 둘째날인 27일(금), KMDP는 CHSCB(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와 공동으로 "The 30th Anniversary Symposium of KMDP&CHSCB" (KMDP&CHSCB 창립 3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그동안 KMDP는 제1회 KMDP 창립 10주년 기념(2004년), 제2회 기증 1,000례 기념(2006년), 제3회 기증 3,000례 기념(2012년), 제4회 KMDP 창립 20주년 기념(2014년), 제5회 기증 5,000례 기념(2019년) 그리고 이번 제6회 KMDP 창립 30주년 기념(2024년) 심포지엄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 전 세계 조혈모세포 전문가와 의료진, 제약사, 정부 부처 관계자 등 100여 명이 넘는 분들이 참석하였습니다. 각 연자의 발표를 통해 미국, 유럽, 일본 그리고 대한민국의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각 국의 상황에 맞는 기증희망자 모집 및 관리 방법, 보다 안전한 기증을 위한 개선 방안, 기증자로부터 채집된 조혈모세포가 더욱 성공적으로 이식환자에게 생착되도록 도울 수 있는 치료 방법 등을 활발하게 논의하였습니다. 특히 KMDP는 이들 국가의 조혈모세포은행과 긴밀하게 조혈모세포 국제교류 중으로 앞으로의 유기적이고 협조적인 관계를 다져 나갈 것을 다짐하였습니다.

심포지엄 외에도 KMDP는 상설 부스를 마련하여 학회장을 찾은 많은 분들에게 KMDP 창립 30주년을 알리고 기증희망등록 캠페인도 진행하며 ICBMT 2024 참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였습니다.



KMDP는 **재외동포 혈액암 환자의 조혈모세포 이식**을 돕습니다.

KMDP는 미국, 일본, 캐나다, 호주 등 26개국에서 조혈모세포 이식을 받았습니다.

57명의 환자가 조혈모세포를 이식 받았습니다.

모든 혈액세포를 만들어내는 이마트 혈액기증 혈액기증을 위해 건강한 조혈모세포의 아시아 철학입니다.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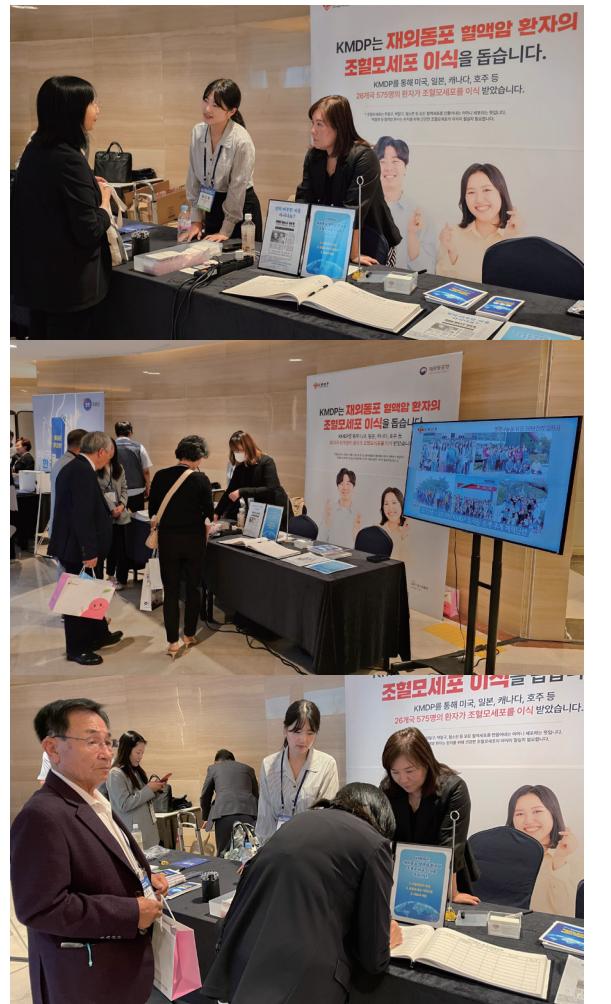
『2024 세계한인회장대회』가 10월 1일부터 4일까지 나흘간 롯데호텔 월드(서울 잠실)에서 재외동포청 주관으로 열렸습니다. “제18회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도 같이 진행된 이번 대회는 “자랑스런 우리동포 함께가는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 아래 전 세계의 한인회장과 대륙별총연합회 회원 등 350여 명이 참가하였습니다.

이번 대회에 KMDP를 포함하여 재외동포청, 인천광역시, 병무청, 법원행정처, 대한법률구조공단, 국민연금공단, 재외한인구조단 등 8개 기관이 참가하여 전 세계 750만 명의 재외동포에게 꼭 필요한 정책과 혜택 등을 알렸습니다. 특히 KMDP는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하여 재외동포 환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을 놓치지 않도록 상세 상담도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재외동포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은 ① 기증희망자 모집사업 ② 이식조정 지원사업 ③ 치료비 지원사업 등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② 이식조정 지원사업을 통해 KMDP는 재외동포 환자가 우리나라에 거주 중인 가족으로부터 조혈모세포를 이식받을 수 있도록 전문 상담 및 유전자 검사, 조혈모세포 채취까지의 모든 과정을 지원합니다.

KMDP 홍보부스를 찾은 미국 동부 지역의 한인회장은 “1980년 후반에 가족이 혈액암으로 투병 중이었을 때 적합한 골수(조혈모세포) 기증자를 찾지 못해 결국 돌아가셨다. 그때 KMDP와 같은 기관이 있었더라면 기증자를 찾아보기라도 했었을텐데 아쉽고 슬프다. 지금이라도 이런 곳이 있다는 사실이 우리 동포에게 많이 알려질 수 있도록 적극 나서겠다”며 아쉬운 마음과 함께 지금의 우리 동포를 위해 굳건한 결심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KMDP는 전 세계 조혈모세포은행과 교류하여 국내외 모든 환자를 위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을 수행합니다. 특히 재외동포청과 지난 해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재외동포의 건강증진을 위해 서로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데요, 이번 대회 참가를 통해 각 국의 한인회에 직접 KMDP를 알릴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이를 발판으로 KMDP는 조혈모세포 이식이 필요한 재외동포 환자에게 신속하게 도움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소식 전합니다 -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캠페인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은 조혈모세포 이식을 필요로 하는 환자와 가족들에게 새 생명의 기회를 주는 아름다운 나눔입니다.

따스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당신의 약속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서약을 하고자 하는 분이 계신 곳이라면 전국 어디라도 언제든지 찾아가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조혈모세포 기증자 동호회 ‘징검다리’, ‘부울경 징검다리’, KMDP 대학생 서포터즈 9기 ‘누리봄’,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온기’ 2기,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조혈모 프렌즈’, ICBMT 2024(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 경북과학대, 경북대, 경북보건대, 계명대학, 고려대, 동양대, 목포대, 상명대, 서정대, 세종대, 연세대 의과대학(원주캠), 영진전문대, 아주대, 우석대, 한림성심대 등 RCY 전국 각지의 지사, 간호학과, 봉사동아리, 학생회 등 생명과 기쁨을 나누어주신 모든 분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기증희망등록 문의 :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1)

* 캠페인 진행 기간 : 2024. 6. 3. ~ 2024. 11. 26.



좋은 소식 전합니다



KMDP NEWS

2024. 6. 1 ~ 2024. 11. 30.



6/18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 봉사활동

혈액암 환자를 위한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봉사활동에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임직원이 참여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들어주신 히크만주머니는 혈액질환 환자분들께 지원됩니다.



6/25

NHN위투, NHN커머스 임직원 헌혈증 기부

NHN위투와 NHN커머스에서 각각 헌혈증 18매, 50매를 KMDP로 기부하였습니다. 특히 NHN커머스는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총 125매를 보내주셨습니다.



6/26

서정대학교 기증활성화 업무협약 체결

지난 해 KMDP 서포터즈 부단장(백재은) 활동의 일환으로 첫 캠페인을 진행한 서정대학교는 학교 차원에서 기증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KMDP와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9/7

KMDP&CHSCB 창립 30주년 기념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 개최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KMDP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이 “조혈모세포 기증 감사의 날”을 공동 개최하였습니다. 수혜자의 감사인사와 “박경림 토크쇼”를 통해 여러 기증자님의 생명나눔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9/12

(주)빗썸코리아 임직원 헌혈증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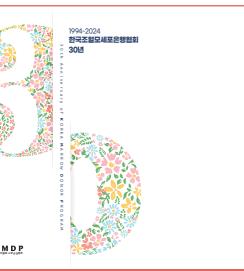
(주)빗썸코리아 임직원 여러분께서 헌혈증 100매를 기부하였습니다. 이번 기부로 누적 400매를 기부해주셨으며, KMDP는 이를 이식환자 및 의료기관에 재기부하였습니다.



9/26-28

“ICBMT 2024” 참가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ICBMT 2024(대한조혈모세포이식학회 국제학술대회)에 참가하여 전 세계 조혈모세포 기증·이식 의료진, 제약사와 교류하고 기증희망등록 캠페인도 진행하였습니다.



10/21

“1994-2024 한국조혈모세포은행협회 30년” 발간

창립 30주년을 맞이한 KMDP의 생명나눔 발자취를 담은 책자를 발간하였습니다. 우리나라 조혈모세포 기증사업의 발전상과도 맞물리는 KMDP의 30년을 되돌아 보며 새로운 도약의 기회로 활용하겠습니다.



8/27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재활 필라테스 재능기부

바시 필라테스 코리아의 재능기부로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햇살나무실에서 소아 환아 2명과 함께 기초체력 강화를 중점으로 재활 필라테스를 진행했습니다.



11/29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해촉식

2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전국 의과대학을 중심으로 기증 인식개선 활동을 펼친 홍보위원회 온기 2기의 해촉식을 진행했습니다. 온기 2기는 총 12회의 캠페인을 진행해 524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고, 헌혈증 223매와 히크만주머니 1,509개 제작해 KMDP로 기부하였습니다.



11/30

KMDP 대학생 서포터즈 해단식

3월부터 11월까지 8개월간의 활동을 마친 KMDP 서포터즈 9기 ‘누리봄’의 해단식을 진행했습니다. 15명의 단원들은 총 6회의 캠페인을 진행하여 122명의 기증희망자를 모집하였고, 카드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 온라인 홍보 활동도 성실히 수행하였습니다.



7/23

서울아산병원 어린이병원, 투병물품 기부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온기’의 히크만주머니 50세트, 한마음혈액원의 소아 마스크 3,000매, 한화자산운용의 ‘희망박스’ 24세트를 서울아산병원 어린이 병원에 기부하였습니다.



8/19

KMDP 사무국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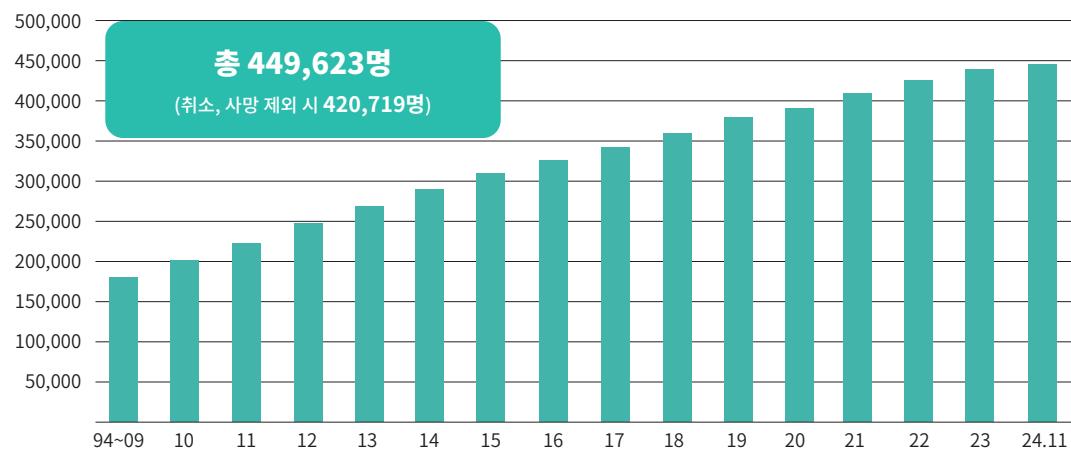
KMDP 사무국이 서울 용산구에서 금천구로 이전하였습니다. 사무국 이전과 더불어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생명나눔, 희망나눔을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겠습니다.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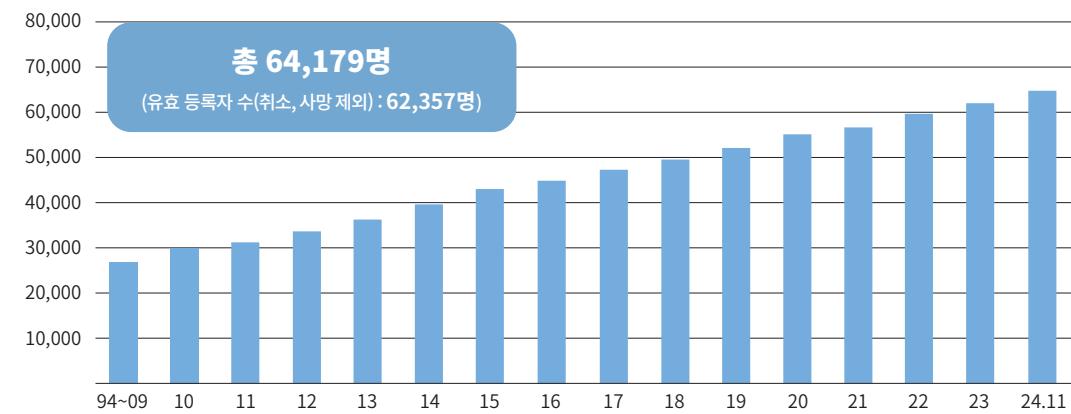
1. 국내 조혈모세포 기증회원자 누적 등록자 수

자료제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단위 :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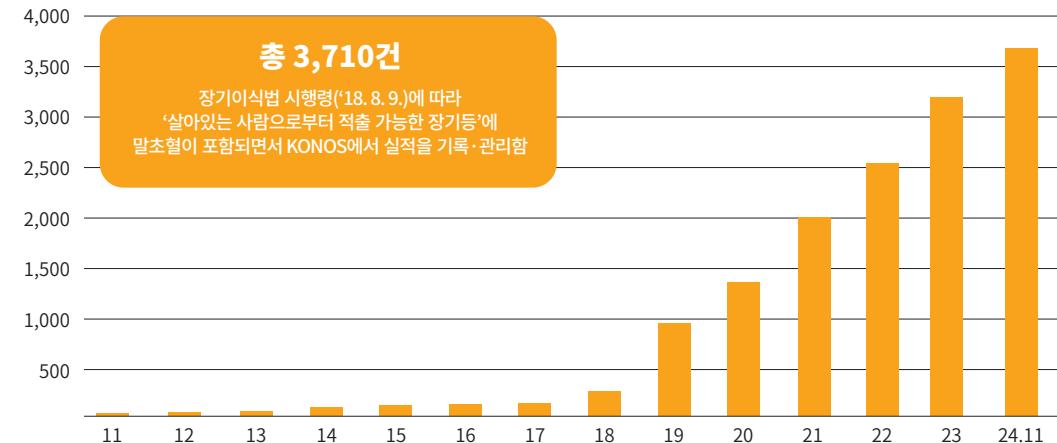
2. KMDP 조혈모세포 기증회원자 누적 등록자 수

자료제공 : KMDP (단위 : 명)



3. 국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이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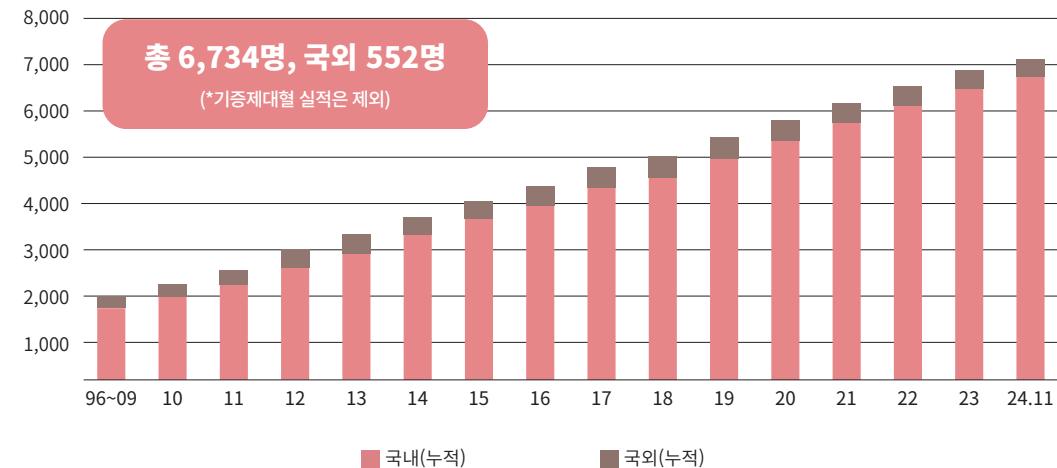
자료제공 :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KONOS) (단위 : 명)



* 국내 조혈모세포 이식조정기관 : KMDP,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 KONOS에 조혈모세포 기증 현황이 등록된 것은 2000년부터이나 이는 혈연·비혈연간 기증 건수가 합산된 것임.
* 위의 자료는 2011년부터 분리 기록된 국내 비혈연간 조혈모세포 기증 현황임.

4. KMDP 국내·외 조혈모세포 기증 및 이식 실적

자료제공 : KMDP (단위 : 명)



2015 (288回)

2016 (315号)

2017 (304号)

2018 (27/12/18)

2019 (338号)

(0.27)

7月1)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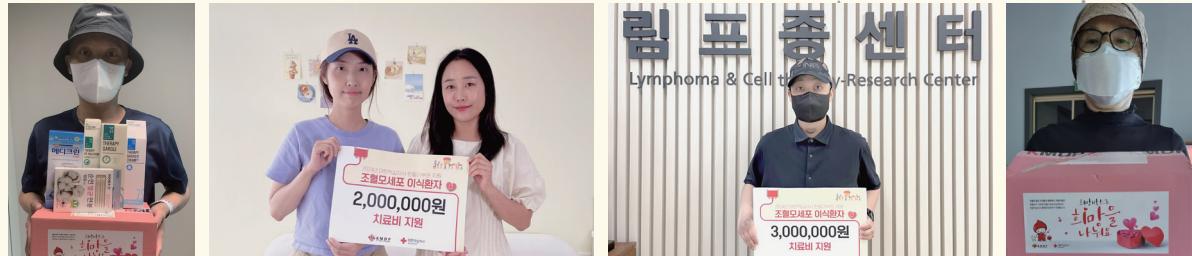
.023 (404²¹)

024 (320 $^{\circ}$, 11월 30 $^{\circ}$ 까지)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으로 아래와 같이 나눔의 손길을 전했습니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치료비 및 투병물품 '희망박스' 지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현재	누계
치료비	40명	61명	60명	161명
	105,000,000원	121,400,000원	110,150,390원	336,550,390원
희망박스	300명	400명	300명	1,300명

· 치료비 지원 대상 조혈모세포 2차 이식 시행 환자, 저소득층 환자, 소아 환자

· 희망박스 지원 대상 KMDP 이식조정을 통한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주요 후원사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2018, 2021~현재), 한마음혈액원(2016~현재),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2020~현재), 한화자산운용(2023)

히크만 주머니 후원 및 지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현재	누계
후원 참여	150명	175명	1,091명	1,416명
환자 지원	152명	59명	199명	410명
	456개	118개	419개	993개

히크만 주머니는 재고·현황에 따라 환자 1인당 2~5개씩 제공되는 점과 사용하기에 적합한 주머니를 제공하고 있어 참여자 수와 지원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히크만주머니 지원 대상 히크만카테터 삽입으로 히크만주머니가 필요한 환자

주요 후원사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2018~현재), SM신용정보(2023), 대구도시개발공사(2023), 신한라이프빛나는재단(2024), KMDP 의대생 흥보위원회 '온기' 2기(2024), 한국건강증진개발원(2024)



"히크만주머니 만들기에 동참해주세요."

중심정맥관과 외부를 연결해주는 히크만카테터를 보다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게 도와주는 히크만주머니를 만들어주세요.
만들어주신 주머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만들기 난이도 : 손바느질, ★★★
- 참여 후원금 : 만들기 키트 1개당 1만원



"따뜻한 항암 전용 특수 비니를 선물해주세요"

항암 치료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탈모를 겪게 되는 혈액암 환자는 힘겨운 치료 과정에서 항암 비니가 꼭 필요해요.
여러분의 바느질로 완성될 부드러운 항암 전용 특수 비니는 혈액암 환자에게 무상으로 지원됩니다.

- 만들기 난이도 : 손바느질, ★☆☆
- 참여 후원금 : 만들기 키트 1개당 3만원

- * 히크만주머니 만들기, 항암비니 만들기 후원금은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기부금영수증, 법인기부금영수증)
- * 참여 문의 : KMDP 기증증진팀 02-737-5533, 안내 3



헌혈증 기부 및 지원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11월	누계
헌혈증 기부	11건	18건	23건	52건
	4,519매	916매	787매	6,222매
헌혈증 지원	44건	39건	17건	100건
	11,600매	9,530매	850매	21,980매

조혈모세포 이식환자 및 기증자 예우로 지원하는 헌혈증은 1인당 연간 최대 50매이며, 의료기관 사회사업실의 경우, 최대 500매를 지원합니다.

- 헌혈증 지원 대상 : 혈액질환 환자, 조혈모세포 기증(희망)자(KMDP 등록 및 조정에 한함)
- 주요 기부처 : 조혈모세포 이식병동이 설치된 대형병원 사회사업실 및 환자지원단체 등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기부해 주세요"

수혈로 인한 환자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잠들어 있는 헌혈증을 보내주세요.
기부해주신 헌혈증은 지원 규정에 따라 혈액질환으로 치료 중인 환자와 조혈모세포 기증자 및 기증희망자에게 지원됩니다.(KMDP 등록 및 기증자에 한함). 헌혈증을 기부해주신 분께는 소정의 기부증서가 발급됩니다.

- 헌혈증 기부 및 지원 문의 : 02-737-5533, 안내 3 (KMDP 기증증진팀)
- 보내실 곳 : (08511)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503호 KMDP 기증증진팀
- * 분실 방지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등기우편으로 발송해주세요.

2만분의 1의 기적, 생명나눔의 기적을 나누는

정기후원신청서

보내주시는 후원금은 소아암, 백혈병 등 혈액암 환자 지원과 조혈모세포 기증 인식개선을 위해 사용됩니다.
또한, 소득세법에 의해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또는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후원자 정보

* 표시항목 필수 기재

*후원자명/사업자명										
*생년월일/성별(개인) <input type="checkbox"/> 기부금영수증 발급신청	□□□□□ - □□□□□									
※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주민등록번호 필수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주소	<input type="checkbox"/> 우편물 수신거부									
이메일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수신거부									
후원자 구분	<input type="checkbox"/> 기증자 <input type="checkbox"/> 기증희망자 <input type="checkbox"/> 이식수혜자(보호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2. 월 후원금

1만원 2만원 3만원 5만원 10만원 기타 _____ 원

3. 후원금 결제방법(택1 필수)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이체일	<input type="checkbox"/> 10일	<input type="checkbox"/> 25일	<input type="checkbox"/> 기타 (일)		
카드결제	카드사		카드번호			
	유효기간	월	년	카드 소유주명	카드 소유주 생년월일	

- 자동이체의 경우, 선택하신 이체일이 첫 후원금이 출금됩니다.
- 카드결제의 경우, 후원신청확인일에 첫 후원금 결제가 이루어지며 이후에는 매월 약정 날짜에 결제됩니다.
- 개인사유로 후원금이 이체(결제)되지 않은 경우, 3일 후에 재청구가 이루어집니다.
- 후대폰 번호 계좌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 KMDP는 정기후원신청 가입서비스 제공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귀하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필수항목)

- 수집·이용 항목 : 후원자명(사업자명), 휴대폰번호, 생년월일/성별, 주소, 후원금 결제정보(계좌이체 : 예금주명,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 생년월일, 이체일 / 신용카드 : 카드 소유주명, 카드사명, 카드번호, 카드 소유주 생년월일, 카드 유효기간)
 - 수집·이용 목적 : 기부이력확인, 출금이체 및 수납(자동이체, 카드)정보, 정기후원회원 서비스 제공
 - 보유기간 : 후원 종료 후 5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기후원 등록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내역 (필수항목)

- 제공받는 자 : 효성에프엠에스(주), (주)트라파스
 - 제공목적 : 후원금 결제, 회원DB관리 및 결제정보·내역, 납입내역,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제공하는 항목 : 회원정보 및 결제정보
 - 보유기간 : 서비스 해지 시 까지
귀하는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정기후원 등록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선택항목)

- 수집·이용 항목 :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 수집·이용 목적 : KMDP 활동 및 후원회원 서비스 제공
 - 보유기간 : 후원 종료 후 5년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할 경우 KMDP 활동 소개 및 후원회원 서비스 제공이 제한됩니다
- * 개인정보 수집·이용 : 동의함 동의하지 않음

■ 기타 고지 사항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 제17조제1항제2호에 따라 기부금영수증 발급 신청 시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개인정보 처리사유 : 기부금영수증 발급 및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요청(국세청)
 - 개인정보 항목 : 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기부일자, 기부금액
 - 수집·제공 근거 : 소득세법 제160조의3, 동법 시행령 제208조의 3

5. 후원신청 및 문의처

- 이메일 : shji@kmdp.or.kr / - 팩스 : 02-737-5336
 - 우편 : (08511)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1차 1503호 KMDP 기증증진팀
 - 후원회원 가입은 KMDP 홈페이지(<https://kmdp.or.kr>)에서도 가능합니다.
 - 문의 : 02-737-5533 (안내 3)
- * QR코드 (후원회원 가입 안내페이지로 바로 이동)



후원에
감사드
립니다
- 정기
후원
신청서



따뜻한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회원님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에 대해 이 지면을 빌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기업·단체 후원회원



개인 후원회원

1) 정기 후원회원

강동우, 강득록, 강상현, 강슬기, 강영경, 강용래, 강원구, 강인보, 강종수, 강진우, 강태호, 강행경, 고영일, 고영철, 고유리, 고윤석, 고해정, 고현종, 공미아, 공성진, 공지현, 곽동훈, 권정도, 권정미, 김건중, 김경민, 김경선, 김경심, 김규현, 김기령, 김나양, 김대중, 김도하, 김도희, 김동휘, 김명길, 김미란, 김미소, 김미지, 김미현, 김민지, 김민호, 김병국, 김병주, 김병한, 김보섭, 김보현, 김봉규, 김선아, 김선정, 김성중, 김세영, 김세진, 김세현, 김소정, 김수동, 김순영, 김신, 김신영, 김영림, 김영자, 김영재, 김영준, 김예래, 김유성, 김은경, 김은숙, 김은실, 김은아, 김은진, 김은혜A, 김은혜B, 김은화, 김은희, 김인숙, 김인환, 김재근, 김재남, 김재영, 김재형, 김정수, 김정현, 김종명, 김주성, 김지석, 김지연, 김지현, 김지환, 김진관, 김진명, 김진선, 김진우, 김진웅, 김창범, 김충만, 김태희, 김하린, 김학기, 김현백, 김혜민, 김혜민, 김혜정, 김희, 노규동, 노영경, 노현관, 노희령, 김구환, 류길환, 문번영, 문정숙, 문준호, 민병우, 민주영, 박덕용, 박민석, 박민영, 박보현, 박봉태, 박상아, 박상영, 박상현, 박석환, 박세림, 박세용, 박소라, 박수경, 박승노, 박시원, 박신애, 박안나, 박영재, 박인걸, 박인태, 박정환, 박준서, 박준형, 박진솔, 박찬영, 박찬호, 박천우, 박춘명, 박태진, 박형민, 박혜림, 박혜옥, 박혜정, 방극희, 배문호, 배원선, 배윤우, 배인귀, 백승진, 사공희주, 서동진, 서정아, 서지수, 서태호, 설화순, 성미라, 성명효, 성진기, 손명숙, 손승완, 손진화, 송병덕, 송지섭, 송진술, 송척호, 신기혁, 신민경, 신용호, 신진경, 안효섭, 양철호, 어해숙, 엄세호, 오덕교, 오미옥, 오상호, 오수현, 오지연, 오현숙, 우영택, 우은지, 우혜덕, 원용식, 원형식, 유미나, 유번림, 유승수, 유영철, 유원영, 유창한, 유철웅, 유현철, 육전수, 윤병학, 윤서진, 윤지용, 이경숙, 이규희, 이금주, 이기환, 이나연, 이동호, 이미란, 이민우, 이민욱, 이민호, 이병복, 이상민, 이상현, 이상환, 이석영, 이선아, 이성수, 이성제, 이수경, 이수현, 이승현, 이언욱, 이연경, 이영재, 이용섭, 이유정, 이유진, 이은민, 이은지, 이은화, 이의성, 이인희, 이재교, 이재석, 이재수, 이재호, 이정윤, 이정호, 이종무,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창석, 이창휘, 이혁중, 이현세, 이현아, 이현주, 이형희, 이혜연, 이호영, 이홍기, 이화영, 임다솔, 임명희, 임보나, 임선영, 윤정림, 임재영, 임한삼, 임희승, 장경호, 장미현, 장영석, 장원재, 장평결, 장호철, 전도석, 전성대, 전원빈, 정계숙, 정구현, 정기운, 정다영, 정달영, 정미은, 정성미, 정성훈, 정승섭, 정승혁, 정영권, 정영례, 정재호, 정정선, 정정숙, 정진영, 정진오, 정혜례나, 정현주, 조규섭, 조동형, 조빛나리, 조성빈, 조승희, 조옥주, 조옹희, 조정희, 조한승, 조향민, 조혜진, 조홍채, 진중광, 차종철, 차형덕, 채은석, 최관호, 최도례, 최미월, 최상필, 최승관, 최연화, 최연정, 최용혁, 최우석, 최은진, 최정란, 최지영, 최철식, 최현준, 추대한, 하세린, 하종률, 하지혜, 한성심, 한성호, 한소라, 한송희, 한순우, 한승철, 한양수, 한연숙, 한원배, 한윤타, 한일호, 함경지, 허관희, 허란경, 허미경, 허지웅, 현정희, 현진, 호인걸, 흥가영, 흥경석, 흥유선, 황규하, 황대만, 황도윤, 황용, 황원철, 황유성, 황은선, 황정환, 황지원

2) 일시 후원회원

강인규, 고정하, 권나현, 김성락, 김영백, 김유진, 박정원, 서순현, 서시연, 선상욱, 신만중, 이광선, 이봉래, 이승환, 이영호, 이진국, 이현지, 이희길, 임충성, 조성경, 최현준, 한보석, 김대훈 외 37명, 한마음혈액원 혈액기부원 혈액기부원 1,219명

3) 혈액암 환자 응원 프로젝트

정미은, 정미란, 김도경, 강윤경, 조인선, 성산노인종합복지관, KB라이프생명사회공헌재단, KMDP 의대생 홍보위원회 <온기> (중앙대의대, 고려대의대)

조혈모세포 기증 활성화 및 혈액암 환자 지원을 위해 KMDP에서는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 홈페이지 신청 : <https://kmdp.or.kr> > 후원 > 개인후원 신청 (정기후원 혹은 일시후원 선택 가능)
- 문의 : 02-737-5533, 안내 3 (KMDP 기증증진팀)

KMDP는 기획재정부 공고 제2023-34호에 의거 “공익법인”으로 등록되어 있어 **후원해 주신 금액은 소득세법에 의하여 개인소득세(연말정산), 법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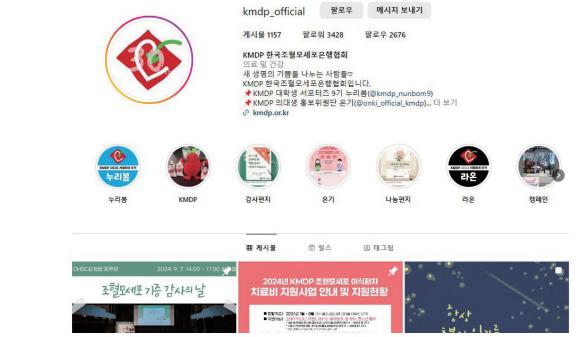
새 생명의 기쁨을 함께 나누어 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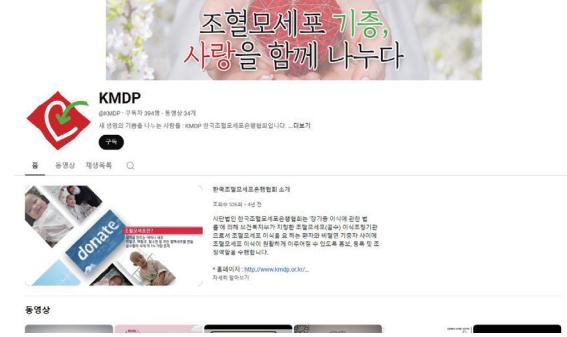
여러분의 조혈모세포 기증으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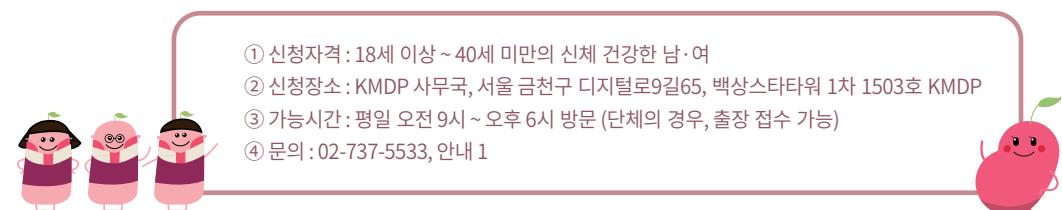
<https://kmdp.or.kr>



https://www.instagram.com/kmdp_official



<https://www.youtube.com/@KMDP>



- ① 신청자격 : 18세 이상 ~ 40세 미만의 신체 건강한 남·여
- ② 신청장소 : KMDP 사무국, 서울 금천구 디지털로9길 65, 백상스타타워 1차 1503호 KMDP
- ③ 가능시간 :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방문 (단체의 경우, 출장 접수 가능)
- ④ 문의 : 02-737-5533, 안내 1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꼭 알려 주세요.

조혈모세포 기증희망등록 후, 주소와 연락처가 바뀌었다면 변경된 정보를 꼭 알려주세요.

그래야만 기증희망자와 HLA 일치 혈액암 환자가 나타났을 때, 신속하게 연락드릴 수 있습니다.

(단, KMDP 기증희망등록자에 한하여, 타 기관 등록자는 해당 기관에 통보)

○ 홈페이지에서 변경하기 : <https://kmdp.or.kr> → 우측 퀵 메뉴의 ‘정보변경’ → 변경내용 작성 → 확인

○ 전화로 변경하기 : 02-737-5533, 안내 1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가득 싣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소중한 것으로 가득하지만
그 중에서도 으뜸은 바로 희망입니다.

여러분이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
희망을 싣고 오늘도 날아갑니다.



새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을